

거리에서

趙 成 龍

우원건축연구소

1. 街路樹없는 都市

「왜 거리에 街路樹가 보이지 않지요?」

유럽 施行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녁 時間을 보낼 때였다. 所員 중의 누군가가 이런 質問을 한 것이다. 바로 헬싱키의 거리였다. 왜 없을까? 그곳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이미 책에서 낮익어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던 그 시간에는 왜 느끼지 못하였을까? 그렇다. 헬싱키뿐 아니라 뮌헨에서도 그랬고 코펜하겐에서도 그러하였다. 그곳에서도 분명 街路樹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곳곳에 무수히 널려 있는 크고 작은 公園이 있었다. 가뜩이나 日光이 모자라 쪼그만 햇볕이라도 있을라치면 당장 옷을 벗어 부치고 日光浴을 즐길 그들에게 도대체 日照를 가릴뿐인 街路樹는 전혀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된 것은 한참 후였다.

우리의 머리에는 으레 거리하면 외줄로 서 있는 프라타나스의 列을 연상한다. 여름이 되더라도 결코 充分한 녹음을 提供해 주지도 못하는 그 列植된 나무들이 겨울이면 몽둥이처럼 전지된채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가로수를 떠올리는 것이다. L教授의 주장마따나 왜 좀더 좁은 간격(그는 약 3미터라도 좋을 것이라고 늘상 얘기한다)으로, 그리고 두 줄로 세워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樹木의 터널이면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좋은 景觀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겨울이라 해도 잔가지들이 얽혀 만들어내는 風景 또한 멋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다못해 굵은 水道管을 뚝뚝 잘라 만든 簡易式 벤치라도 놓는다면 걸다 지친 시민들을

그곳에서 쉬어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복잡한 明洞, 忠武路 거리에 자동차를 집어넣기 보다는 그곳을 나무가 있고 잘 포장된 街路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거리거리에 무심하게(?) 서 있는 案内標識를 바라보자. 그 規格이나 色彩의 不調과 까지는 차치하더라도, 거리마다 조금씩 다른 英文表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 市民이야 「스」이 「ch」로 되던지 「j」로 되던지간에 적당히 헤아릴 수 있을 터이지만, 外國人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하기가 스모그 자욱한 이 巨大都市에서 그만한 생각은 오히려 사치일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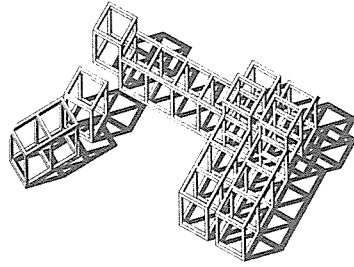
2. 사람이 사는 「집」

몇해 전에 우리나라 劇場에서도 개봉되었던 SF映畫 중에 「惑星脱出」이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 映畫의 마지막 場面이 그렇게 쇼킹할 수가 없었다. 外界에 到着한 한 宇宙船 조종사, 원숭이가 人間을 支配하는 그 世界에서 千辛萬苦 끝에 脱出하여 發見한 것은 바로 이천년 전에 滅亡해 버린(마치 아틀란티스의 傳説과도 같은) 뉴욕의自由의 女神像이었던 것이다. 언젠가 建築家 K氏는 江南의 大單位 아파트 건설을 그 特有的 毒說로 「수백, 수천년이 지나 지금의 여의도나 강남지역의 대규모 住宅團地의 遺跡을 發掘한다면, 그들(미래인)은 마야 20세기 말의 한국에는 軍人들만 살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걸.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住居形態를 바로 兵營으로 判斷할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라고 못마땅해했다. 前記한 映畫 얘기와는 다르지만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 모두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

다.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都市는 線이다」라는 標語를 지나치게 信奉하는 때문일까? 아니면 秩序를 지키기 위한인가? 이 모든 사실도 결국은 그리 될 수 밖에 없는 事業主의 物量主義에 起因되고, 그리 따를 수 밖에 없는 建築人의 良心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은가? 똑같은 높이의 비슷한 길이의, 그리고 거의 흡사한 表情을 가진 共同住宅을 無限定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수천 世帶가 들어서면서도 거기에 小公園하나 없는 이상한 團地에서 과연 우리는 살고 있다. 아니 生活(?)하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나 이런 저런 신변얘기를 주고 받는데, 「자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나?」 무척 의아스럽게 묻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의 아파트에 살고 있음이 기껏해야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묻고 말았지만, 이 單純한 對話가 한참동안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이사를 한다면(가령 職場이 옮겨져 出退勤하기가 不便하다거나, 食口가 늘거나 줄어서 집 크기의 調整이 필요하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이 낡아서 더 이상의 機能이 어렵다거나 등등) 뚜렷한 理由와 原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별 생각않고 無心히 한 얘기였지만 바로 그 無心 속에서 우리의 住居概念이 變質되고 있음을 본 것이다.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中東의 曠野 砂漠에서 몇년간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귀국하여 住宅을 사려고 하였더니, 이미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올라버렸다는 年센스는 이미 너나할 것 없이 다 아는 바이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意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있어 최소한의 住居面積



은 얼마만큼인가? K教授는 核家族의 경우 居住人 모두의 나이를 더한 것이 그 집의 적정면적(평방미터)이라고 力說한다. 住居裝置는 不動産이나 虛榮의 道具로 더이상 쓰여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日本の 安藤忠雄이라는 건축가는 最近에 폭이 2.3미터 밖에 되지않는 都市型住宅을 發表하였는데 절묘한 空間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어령의 말을 빌지않더라도 縮小指向의 그들 思考는 充分히 논란이 되겠지만, 團地의 位置와 景觀, 空間의 利用度, 快適한 屋外空間보다는 居室과 안방의 크기에 더욱 신경을 쏟는 우리 主婦들의 意識을 고칠 수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 모두가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安易한 思考에 대한 우리의 責任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濟州島와 벽돌집

釜山에 불 일이 있어 열차를 타고 龜浦쪽 다달으면 짜증이 난다. 바로 철길 양옆으로 즐비한, 말하자면 「現代住宅」이라는 것 때문이다. 바로 몇 년 전에 禾谷洞쪽의 新興住宅街에서 보이던 콘크리트와 벽돌로 지어진 問題作들이 바로 이 都市에도 個性없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또 몇해쯤 후에 바다를 건너 검은 돌담과 딱정벌레같은 초가집이 어울려 特有的 風物을 보여주는 제주도의 마을에 엉뚱스럽게 나타난다. 심지어 콘크리트에 섞는 모래·자갈은 물론 벽돌까지도 그 재료는 陸地에서 실어왔으므로 住民들의 말을 빌면 「수입품」이 되는 셈이다.

연전에 바로 이 제주도에 觀光호텔을 세울 계획이 있어서 자주 이 섬에 다니면서 그곳의 여러 사람들과 어울

릴 때마다 푸념을 하였더니 그쪽 사람들의 의견은 또 달랐다. 그 獨特한 火山石을 쓰지 않고, 無個性하게 붉은 벽돌을 실어 날라다 쓰느냐는 질문에 아예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면서, 그 검은 돌은 祖上代代로 너무 오랜동안 보아왔으며 이제 누구나 지긋지긋해 한다는 것이었다. 일핏 들어 그도 그러려니 생각이 들었지만, 세월이 변하는 동안 새로운 方法으로 이 훌륭한 재료를 다듬지 못하였나 하는 自責으로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었다. 그들의 思考를 나무랄 것도 없이 이는 우리들의 커다란 게으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이었다. 그리 했더라면 저 보기 흉한 콘크리트 지붕은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러던 것이 이번 휴가에 서귀포를 다녀 오면서 군데군데 붉은 송이로 덮인 몇군데 건물의 지붕이며, 구멍이 송송 뚫린 화산석을 잘 다듬어 바닥에 깔아 놓은 民俗博物館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4. 安國洞에서

秘苑 앞에서 鍾路에 이르는 거리를 서울의 멋이 담긴 街路로 만드는 꿈을, 한 女流畫家가 그의 隨筆에서 말한다. 나지막한 기와집이 즐잇고, 밤이면 청사초롱이 매달리는 아름다운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의 어느 都市건 그 나름대로 「올드타운」이라는 곳을 갖고 있다. 都心 전부가 그러한 빠리나 로마는 차치하고라도 거의 모든 都市가 옛 歷史를 그 거리에 담고 있는 것이다. 2次大戰 중 獨逸空軍의 폭격으로 속밭이 되어버린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거의 모든 建物과 거리가 전후 國民들과 建築家들에 의하여 감쪽같이 再建되어 있다. 이 올

드타운에 그 民族의 숨결과 오랜 모습이 담겨 있음으로 觀光客은 우선 그곳으로 찾아 모이기 마련이고, 거기서 그 나라 그 民族의 참 모습을 理解하게 된다. 더욱이나 市民 모두가 그곳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오래된 古蹟이라면 景福宮이거나, 南大門이거나, 宗廟도 있다. 아름답기 比할데 없는 秘苑도 있다. 그러나 거리는 없는 셈이다. 太平路일수도, 鍾路일수도, 忠武路일수도 없지 않는가.

市庁 앞 廣場에서는 무엇이 보이는가. 聖公會聖堂의 아름다운 뽕죽지붕과 돌담너머의 德壽宮, 日本의 侵略 중에 그들에 의해 建設되었다는(육중하기는 하여도 그래도 아직 보기 싫지는 않는) 市庁舍 외에 그곳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南大門을 가로막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호텔이며, 無個性하게 서 있는 몇개의 높고 낮은 高層建物群이 이루는 景觀은 아무리 더운 여름 날 로터리의 분수가 뿜어대더라도 시원스럽게 어우러지지 않으니 답답하다. 세워질 그 당시로서는 前衛的으로까지 느껴졌을 빠리의 뽕뽕 두센터도 자세히 살펴보면 유별난 모습과는 달리 古都의 스카이라인과 無限없이 잘 調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다른 色彩와 形態이긴 하여도 그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霧困氣는 드라마틱하기조차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오랜 歷史가 담긴 거리가 필요하다. 넓을 것도 굉장할 것도 없이 우리의 숨결이 계속할 空間이 필요한 것이다. 歷史의 固有名詞로 바뀌는 이름뿐인 거리 이름보다도 그 거리의 분위기가 우선 歷史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